

## 6 캠퍼스 내 갈 곳 잃은 새내기들



학생들이 없는 학교에는 텅 빈 강의실만 남아 있다.

(사진=허지영 기자)

# 대학생활, ‘에타’로만 배웠어요

### ▶1면 ‘모니터 속 새내기’에서 이어짐

문제는 온라인 행사가 찾아지면 새내기 교육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과외나 알바 등의 이유로 온라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신입생들은 심각한 정보 불균형을 겪는다. 대면 수업 체제에서는 신입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여럿이다. 필수교양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서 동기와 선배들에게 정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내기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개별적으로 공백을 메꿀 기회가 많았다. 하지만 수업과 대학 활동의 비대면 진행이 주가 된 지금, 행사를 놓친 이들은 수강신청 및 강의에 관한 정보를 혼자 찾아보거나 직접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비대면 체제로 인해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신입생들이 ‘소속감 부재’를 겪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모든 신입생이 한자리에 모여 레드카펫을 밟고 평화의 전당으로 입장하는 입학식은 취소됐다. 단과대별로 진행되는 새내기 배움터마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신입생은 캠퍼스에 발을 들일 일이 드문 상태다. 신입생 유태웅(Hospitality 경영학부 2021) 씨는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방안에 대해 “캠퍼스를 직접 방문해보지 못한 신입생도 있을 것이고 면접이나 논술고사를 봤던 학생이더라도 캠퍼스를 구경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라며 “선배님들이 신입생과 함께 캠퍼스 탐방을 해주며 대학생활에 관한 팁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장애가 생겼다. 신입생들이 각종 행사와 축제까지 체감하지 못하면서 이런 현상은 점차 심해지고 있다. 호텔관광대학의 ‘관광제’, 조리학과에서 진행되는 ‘에프에프’, 한의과대학의 ‘의인축전’ 등 단과대별로 행해지던 전통적인 행사마저 취소되면서 신입생이 자신의 단과대나 학과에 애정을 가질 기회 또한 더욱 줄었다.

### 익명 커뮤니티로 처음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기현상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은 신입생들의 ‘정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자리를 잡았다. 해당 학교 인증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고, 어느 게시판이든 익명으로 쉽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내기 게시판을 통해 친해진 같은 과 동기가 있다”고 밝힌 신입생 한 씨는 “처음엔 익명으로 알게 됐지만 이제는 친해져서 학과 관련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입생 이은주(경영학과 2021) 씨는 “기숙사 입사나 필수 교양과목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다른 신입생들이 신속하게 답글을 달아줬다”며 “덕분에 빠르게 궁금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궁금한 것을 묻기 어려운 신입생들에게는 익명으로 부담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소통은 신입생들이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의 신입생들은 같은 학과나 동아리 등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대학 내 인간관계를 형성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속 익명사이트에서 처음 교우관계를 형성하기에 캠퍼스와 학과,

나이를 불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익명 커뮤니티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신입생은 학생증이 발급된 이후에 더욱 다양한 게시판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새내기 게시판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궁금한 것들이 많은 입학 전과 개강 직후의 시기에는 커뮤니티 사용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 학교 차원의 신입생 교육 프로그램 마련 시급해

소외감을 느끼는 신입생들이 늘고 있지만, 신입생 교육을 위해 선배들이 직접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1학번 신입생들의 선배인 20학번 학생들 또한 적절한 신입생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행사를 기획하거나 진행하기 위한 경험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어슬픈 새내기 시절을 보낸 20학

번 학생들을 두고 ‘미개봉 중고’라 칭하는 인터넷 밈도 나돌고 있다. 대학 생활 속 새내기로서 여러 혜택과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2학년이 되어버린 그들을 뜯지도 못한 채 중고품이 되어버린 것에 비유한 것이다.

신입생을 위한 수강신청 교육이나 멘토-멘티 매칭 프로그램 등 온라인 행사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행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내기를 향한 다른 구성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신입생 A씨는 “수강신청 교육 오리엔테이션이 수강신청 전날에 진행돼 실질적인 도움은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후배에 비해 참석한 선배의 수가 적어 구체적인 답변이나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A씨는 “선배님들이 자신이 겪었던 고충이나 어려움에 대해 사소한 것까지 자세하게 영상으로 제작해 올려준다면 좋겠다. 새내기가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선 신입생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가 주도해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입생 이 씨는 “새내기를 위한 모의 수강신청 프로그램 등이 제작되어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신입생들이 충분히 연습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현재 마련된 수강신청 모의 테스트 제도의 대상에서 신입생은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같은 새내기 맞이 행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효율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신입생 교육 플랫폼과 행사 규율이 필요하다는 데 초점이 모이고 있다.

신입생들은 대면으로 선배들과 동기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익명 커뮤니티, 화상통화 플랫폼, 온라인 채팅방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힘겹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방식의 새내기 맞이 행사와 교육의 빈틈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신입생들이 대학 사회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신입생 한 씨는 “캠퍼스 생활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티나 새내기 관련 프로그램들이 취소되고 비대면으로 대체되다 보니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기에 대면으로 전환된 이후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호텔관광대학 앞, 신입생의 입학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허지영 기자)